

# 1990년대 이후 대만에서 중국연구의 현지화 및 연구방법에 대한 논점(論點)

임규섭\*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방법의 논쟁 |
| II. 중국연구의 명칭 및 역사 | V. 결론        |
| III. 중국연구의 현재화    |              |

## | 논문요약 |

한국의 중국연구는 주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및 대만 등 국가의 학술적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다. 그중 대만의 중국연구 경험도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적지 않은 연구결과와 성과를 제시하였다. 어느 시기에는 대만유학파도 한국의 중국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본 논문은 대만에서 중국연구의 정의, 명칭 및 그 역사 과정을 살펴보고, 1990년대 이후 중국연구의 현지화 및 연구방법의 논점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국과 다른 환경에 처한 대만의 중국연구는 다른 인식론과 목적성을 갖고 출발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변화로 인해 대만은 중국연구의 시각이 다른 국가 연구로 전환하였으며, 대만의 장점을 찾아 대만특색의 중국연구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연구의 정체성이 변하고 탈서구화 경향도 나타났으며 연구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쟁도 진행되었다. 주요 논점으로 지역연구와 분과학문 간의 관계, 내부자적 시각, 중국중심주의, 감정이입법, 질적 연구, 현장경험, 미시적 연구, 학술연구와 정책연구 능력 견비 등이 있다. 그러나 대만의 중국연구는 탈서구화를 외치면서 학문적 탈식민주의 연구경향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논리방식도 미국의 인문·사회과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반응적 경향을 보였다.

\*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주제어: 한학연구, 중국연구, 지역연구, 대만, 연구방법

## I. 서론

대만에서 ‘중국연구(中國研究)’<sup>1)</sup>는 학문의 한 영역으로 대학, 정부기관, 학술연구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었으며, 순수한 학술적 목적도 있지만 국가이익에 기초한 생존전략의 중요한 장(場)이 되었다. 대만의 중국연구는 1950년대부터 ‘개인적 현장 경험’과 중국의 외교 정책으로 인한 대만의 특수성으로 학문적 지위를 가졌지만, 1980년대 들어와 서구의 중국연구가 도입되고 중국이 개방하면서 대만특색이 사라지고 그 지위도 상실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대만의 중국연구 학자들은 서구의 사회과학 연구방법을 운용(運用)해야 할 뿐 아니라 대만의 주체성도 가져야 한다고 인식했다(楊開煌 외 2002, 2). 그 후 대만에서 ‘학문의 현지화’ 영향하에 중국연구도 자신의 위치를 반성하며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2013년 10월 18일에 개최된 대만의 국립청화대학교 당대중국연구센터<sup>2)</sup> 10주년 기념식에서 국립대만대학교 중국대륙연구센터 쉰정동(左正東) 교수는 “과거 대만은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 양안관계(兩岸關係)의 불확실성과 중국연구와 관련된 정보 취득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대만의 중국연구 환경은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고 대만학자들은 ‘주변화(周邊

1) 현재 대만에서 ‘중국과 관련된 연구’는 일반적으로 ‘중국대륙연구(中國大陸研究)’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중국본토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논문은 모두 ‘중국연구’라고 통일하여 칭한다.

2) 대만의 주요 연구중심 대학들은 중국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술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대륙연구센터(中國大陸研究中心)’를 설립하였는데, 현재 대만에는 3곳이 있다. 2002년 국립정치대학교(國立政治大學)가 중국대륙연구센터(中國大陸研究中心), 2003년 국립청화대학교(國立清華大學)가 당대중국연구센터(當代中國研究中心), 그 후 2005년 국립대만대학교가 사회과학대학 부속으로 중국대륙연구센터(中國大陸研究中心)를 설립하였다(王振寶 2011, 13).

化)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陳志柔 외 2014, 27-28).

1990년대 이후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대만학자들은 “중국연구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대만의 학술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대만은 자신의 장점을 찾아 대만특색의 중국연구를 구축하려 한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한국에게도 매우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한국의 중국연구자도 서구 및 중화권(中華圈) 국가와 차별화된 중국연구를 구축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그 중 중국과 동종동어(同宗同語)인 대만의 중국연구 경향 및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의 중국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한국의 중국연구는 미국, 유럽, 일본, 홍콩 및 대만 등 해외의 학술적 영향을 받았다. 그 중 대만의 중국연구 경험도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적지 않은 연구결과도 제시했다(전성홍 1996, 26).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대만유학파<sup>3)</sup>는 한국의 중국연구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다(박병석 1999, 191-192).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대만에서 중국연구가 전환하는 원인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논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 형성된 중국연구의 특징을 분석한다. 대만의 중국연구 경험을 거울삼아 한국의 중국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위의 연구 동기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첫째는 대만에서 중국연구와 관련된 정의 및 명칭을 살펴보고, 각각의 명칭이 담고 있는 역사적 배경 및 의의를 파악한다. 둘째는 1990년대 이후 대만에서 중국연구의 정체성 변화와 현지화를 살펴본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중국연구자의 신분 및 역할에 대한 고민을 파악하고 중국연구의 현지화를 위한 대만 학계의 노력을 분석한다. 셋째는 1990년대 이후 대만에서 형성된 중국연구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분석한다.

3) 한국에서 중국학계의 연구경향은 출신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유학파는 이론수준이 높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현장경험이 낮기 때문에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보이는 가능성이 크며, 대만유학파는 미국유학파에 비해 직접자료를 사용하여 현실에의 접근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체계성과 이론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학술적 연구에 대만의 반공이데올로기가 침투되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평도 받았다(박병석 1999, 191-192).

## Ⅱ. 중국연구의 명칭 및 역사

### 1. 중국연구의 정의 및 명칭

과거 대만에서 중국연구의 지위와 내용은 외국에서의 중국연구와 구분된다.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국통(中國通) 혹은 한학자(漢學者)는 상고(上古)시대부터 현대까지, 과학기술에서 인문학까지, 정치영역에서 경제영역까지 모두 포함한 ‘지역연구’를 말하며, 자신의 전문지식으로 ‘중국문제’를 연구한다. 그러나 대만에서 중국연구는 1949년 이후의 ‘중국본토’를 대상으로 하였고, 전공 지식과 관련된 학술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임무(政治工作)’의 일부분으로 민감한 정치적 사명(使命)을 띠고 출발했다(楊開煌·魏艾 1995, 3).

현재 대만에서 중국연구란 1949년 이후 중국 관련 학술연구인 ‘당대중국연구(當代中國研究)’이다. 즉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이후 ‘중국공산당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한다(林碧炤 2005, 29). 옹송란(翁松燃)은 대만에서 중국연구란 당대(當代)<sup>4)</sup> 중국의 사회현상 배후의 요인 및 동향을 연구하고, 향후 발전 상황을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사회과학 학계가 1949년 이후 중국의 역사, 지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률 및 군사 등 여러 영역, 여러 학과의 연구를 의미한다. 중국연구의 내용은 주로 사회과학 측면을 의미하며, 문학, 종교 등 인문학 영역은 핵심범위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하였다(翁松燃 2005, 32). 양즈링(楊芷菱)은 대만 학계에서 중국연구는 주로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현대중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든 연구이며, 이런 연구들은 반드시 역사, 언어, 법제 및 문화 등 지식을 배경으로 구축해야 하고, 사회과학 영역 간에는 반드시 서로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楊芷菱 2005, 5).

대만에서 중국연구는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정권이 대만으로 철수한 이후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1949년 이전을 포함하지 않고

4) ‘당대’란 시기적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인문학을 배제한 사회과학 영역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중국연구와 관련된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한학연구(漢學研究)<sup>5)</sup> 중국학(中國學), 비정연구(匪情研究), 중공연구(中共研究), 중국대륙연구(中國大陸研究) 및 중국연구(中國研究)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명칭에 따라 연구 대상과 범위도 변해왔다. 특히 사항으로 과거에 중국연구에서 ‘대만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었지만, 최근에는 대만연구(臺灣研究)<sup>6)</sup> 및 양안관계연구(兩岸關係研究)<sup>7)</sup>를 중국연구와 분리하여 단독으로 그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 2. 중국연구의 역사 과정

지역연구의 전환은 반드시 그 지역의 발전 및 변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연구의 전환을 이해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배후의 모든 정치·사회적 맥락을 깊이 분석하여야 한다. 대만에서 중국연구는 양안관계의 발전 추세와 뿔 수 없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연구경향도 뚜렷한 제도적 변천을 거듭해왔다. 대만에서 중국연구의 시기별 구분 및 특징은 학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카이황(楊開煌 2002) 교수의 시기 구분을 따른다.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되어 발전해왔다.

- 5) 대만에서 ‘중국 전체’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학문을 ‘한학연구(Sinology: 漢學研究, 中國學)’라 한다. 여기서 중국 전체란 1949년 이전, 즉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의 모든 중화문명을 이르며, 그 주제는 문화, 역사, 지리 및 모든 문명과 관련된 주제를 포함한다. 초기에 문학 방면의 연구가 한학연구 발전에 많이 기여했다(林碧韶 2005, 29). 한학연구의 중점 내용은 중국의 전통문화역사, 문학, 종교 등이 주제이며, 사회과학 영역은 비교적 다루지 않았다(翁松燃 2005, 33).
- 6) 대만연구는 1980년대 대만에서 민주화운동이 시작한 이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민진당(民進黨) 정권이 성립된 이후, 국제사회는 대만의 경제, 사회 상황 및 인류학 변화 연구를 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대만연구를 전통의 한학연구 및 중국연구와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만 경제발전의 정치적 배경요인을 이해하려 하였다(林碧韶 2005, 29).
- 7) 대만에서 ‘동원감란시기(動員勘亂時期)’가 종료되면서 대만의 중국연구에 ‘양안관계연구’가 새로운 과제로 나타났다. 대만사람들의 중국본토 친인척 방문(探親)이전에, 중국연구의 주요 주제는 ‘중국공산당(中共)’의 모든 행위를 비판하는 것으로 양안관계연구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양안 간의 문제를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다. 현재 중국연구에서 양안관계 영역은 이미 독립된 주제로 발전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楊開煌·魏艾 1995, 23-24).

첫 번째 시기는 ‘비정연구(匪情研究)<sup>8)</sup>’ 단계로서 중국국민당이 내전에 진 후 대만으로 물러난 1949년부터 1981년까지이다. 과거 국공내전(國共內戰) 시기에 중국국민당은 중국공산당을 ‘공비(共匪)’라고 칭하였으며, 그 영향을 받아 공비의 개념은 대만의 중국문제연구의 핵심이 되었다. 그 후 공비 개념은 대만에서 30여 년간 사용되었고, 주관적·객관적 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연구도 전환을 거듭해왔다. 이시기 중국연구의 대상은 ‘중국공산당 정권’, 특히 공산당 중앙(中央)이 유일했었다. 사실상 학과의 기준으로 보며 ‘학술적 연구’라고 볼 수 없다(楊開煌 외 2002, 7-8). 당시 중국연구는 적의 동태 연구 및 반공 선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고, 대만에서 국민정부(國民政府)의 통치 정당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보기관’ 혹은 국가안전부에 소속되었으며, 대다수는 실제로 적(敵)인 중국공산당과 투쟁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張弘遠·李宗義 2005, 253). 당시 중국본토의 자료와 정보는 폐쇄되어서, 관련 연구자료 혹은 정보를 쉽게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지하여 사건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시기는 ‘중공연구(中共研究)’ 단계로서 중국이 유엔(UN)에 가입한 1971년부터 대만이 ‘국통강령정책(國統綱領政策)’을 제안한 1991년까지이다.<sup>9)</sup> 연구대상의 변화, 새로운 연구자의 출현 및 새로운 연구패러다임으로 인해서 대만의 중국연구는 전환하였다. 이 시기 중국연구는 과거 비정연구의 전통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기타 학문과의 ‘이론적 교류’도 진행하여, 중국연구의 학술적 가치가 다른 학문영역의 학자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張弘遠·李宗義 2005, 256). 연구대상은 ‘중국공산당 정권’에서 ‘중국본토’로 점점 확대되었으며, 연구범위도 중공외교, 중공민족정책, 중미관계, 중공통일전략 등을 다루었다. 연구방법도 전통적 연구방법을 반성하면서 서구의 사회과학 연구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의 성격도 적의 동태 파악 및 반공 선전에서 서서히 벗어나 ‘학술적 연구’와 ‘적의 동태 파악’을 구분하였다. 1970년대에는 반공의 신념을 강화하고, 1980년

8) ‘비정(匪情)’이란 과거 중국국민당 정권이 중국공산당을 비하(卑下)하는 용어로서, 비적, 토비, 공비라는 뜻이다.

9) 이 시기는 대략 20년으로 전만 10년은 ‘비정연구’와 중첩되었다. 전만 10년 기간은 중국연구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과정 중 ‘완충 시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에는 중국의 통일전략에 대한 저항(抵抗)을 목적으로 중국연구를 진행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중국대륙연구(中國大陸研究)’ 단계로서 1988년부터 현재까지이다. 1988년은 대만정부가 중국본토로 ‘친인척 방문(探親)’을 허용한 다음해로서, 중국국민당은 전당대회에서 ‘반공정책’을 ‘현단계중국국민당대륙정책(現段階中國國民黨大陸政策)’으로 수정했다. 또한 1991년 5월에는 40여 년간 실시한 ‘동원감란시기’를 폐지함으로써 정치 분위기는 급변했고 중국연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 중국연구는 ‘중국본토’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범위는 중국연구와 관련된 모든 주제와 국제정세, 아시아정세의 변화 등을 포함했다. 연구방법도 서구의 사회과학이론, 현지조사방문 및 설문조사 등 ‘경험 연구’를 활용했다. 연구의 성격은 학술적 연구를 위주로 하면서 ‘중국에 대한 정세 관독’도 학술화(學術化)를 지향하게 되었다.<sup>10)</sup> 이때부터 중국연구자는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새로운 싱크탱크도 잇달아 설립되었다(楊開煌 외 2002, 15-22).

이 시기에는 세계적으로 냉전의 붕괴, 이에 따른 공산이데올로기의 약화와 공산권의 몰락, 그리고 세계화 현상이 가속되었으며, 대만 내부적으로 민주화, 현지화, 탈중국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 변화, 대만민족주의 강화, 대만의 국가정체성 변화 및 그로 인한 중국을 다른 국가로 인식하려는 움직임, 특히 2000년대에 국민당에서 민진당(民進黨)으로 정권의 변화로 인한 중국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도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하면서 양안관계도 서서히 개선되었다. 대만의 중국연구 학계도 서구의 중국연구방법의 변화 및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문화이론과 탈식민주의 이론 등이 유행했고, 더 나아가 학문적 ‘탈서구화’(脫西歐化)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요인으로 인해 중국연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되었다.

10) 양안(兩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만에서 중국연구의 학술화는 ‘정책 성향이 강한 학과’로 발전하였다.

### Ⅲ. 중국연구의 현지화

#### 1. 중국연구의 정체성 변화

1990년대 초부터 대만은 내적으로 민주화, 현지화<sup>11)</sup> 및 탈중국화(脫中國化), 외적으로는 세계화, 탈냉전 등의 영향, 그리고 양안관계의 호전(好轉) 등으로 인해 중국연구의 시각이 ‘다른 국가 연구’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즉 중국을 ‘객관적 실체’로 연구하려 했다. 그 결과 중국연구의 사회적 공헌의 대상 및 출발점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패러다임도 서서히 전환<sup>12)</sup>하였다(張弘遠·李宗義 2005, 257).

##### (1)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과거 대만의 중국연구는 양안(兩岸)의 대치 상황으로 객관적인 연구성 과물이 적었고, 대부분 연구자들은 국민당정부의 정치선전 및 군사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 중국연구자는 “나는 중국인이다.”라는 입장에서 “중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中國何去何從?)”를 연구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만의 국가정체성이 서서히 변하면서 대만의 중국에 대한 관점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리덩후이(李登輝)와 천수이벤(陳水扁) 총통 시기 ‘대만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중심이 되어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를 ‘외국역사’로 분리하여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만의 중국연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대만 독립진영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를 외국역사로 분리하길 주장했으며, 교과서를 수정하여 ‘중국통사’와 ‘대만통사’를 분리하여 가르치게 하였다. 특히 2000년대 천수이벤 총통이 집권하면서 대만독립 세력이 강하게

11) 1990년대 이래 대만에서 진행된 ‘현지화(本土化)’는 ‘중국화(中國化)’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화(臺灣化)’를 의미한다(吳玉山 2000, 3). 즉, 대만에서 현지화는 ‘탈서구화’와 ‘탈중국화’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12) 대만에서 중국연구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기보다 패러다임이 ‘다원화’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徐斯勤 외 2006, 1).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원래 중립을 지키던 학자들과 연구기관들도 이러한 사회적 영향 및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陳東林 2004). 대만의 국가정체성이 변하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도 전환했으며, 이는 곧 중국연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당시 민주화, 현지화 및 탈중국화 등 영향하에서 대만의 중국연구는 ‘다른 국가’를 연구하는 시각을 보였다(임규섭 2014, 11-12).

과거 대만이 중국을 연구하는 목적은 정치 및 군사상의 필요였지만, 현재 대만이 중국을 연구하는 이유는 ‘사회’에서 나타난 ‘자발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이전의 중국연구는 ‘국가’<sup>13)</sup>가 ‘적’<sup>14)</sup>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했다면, 현재는 대만사회가 ‘다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李宗義 외 2006, 20). 1990년대 이후 대만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대만의 중국연구는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다.

## (2) 중국연구자의 신분

대만에서 중국연구자는 중국의 명칭, 신분, 이미지 및 이런 요소들의 끊임없는 재조합과 새로운 해석들을 읽고, 자기 자신이 또다시 조합하고 해석하여 중국연구를 진행한다. 중국연구자는 개념의 선택과 담론의 구축을 통해서 ‘중국연구에 대한 텍스트’를 만든다. 현재 대만에는 식민지역사, 국공내전 및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부적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중국연구 학계는 각각 일본, 미국 및 중국을 출발점으로 하고, 그들 간에 상호 영향을 주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학자들은 서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술적 관점의 표현방법과 학술적 내용에도 상호 영향을 미친다. 그런 과정에서, 연구자는 ‘담론의 신분’을 선택해야 한다. 즉, 중국에 대한 ‘확실한 시각’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각’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관한 텍스트’는 학자들의 선택에 따라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 종합체’가 되어버린다. 대만에서 어떠한 중국관(中國觀)도 정치적 영향 및 정치화된 사회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학자들은 중국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사회가

13) 대만의 중국국민당 정부.

14) 중국공산당.

어떻게 취급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럼으로 ‘중국에 대한 신분 선택’은 중국연구의 성과물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버렸다(石之瑜·包滄亮 2012, 65). 1990년대 이후 대만 내에 벌어진 통일과 독립, 외성인과 내성인 간의 갈등 문제<sup>15)</sup> 등이 확대되면서 중국연구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자가 중국을 연구할 때 취했던 연구의 가정(假定)이 크게 변하였다.

첫째 과거 중국연구자는 “우리는 중국인(中國人)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중국연구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나는 대만인(臺灣人)이다.”라는 전제하에 진행하고 있다. 중국인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잘못된 점을 비평하면 되지만, 대만인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중국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둘째 과거 연구자는 “중국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대만과 중국공산당 간에 “중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노선 투쟁’을 진행했다면, 현재는 ‘국가와 국가’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국연구의 핵심은 “대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지 중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과거는 항일전쟁의 승리, 국공내전, 국가분열 등 역사적 기억이 대만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었지만, 현재는 동맹국의 전승, 국민당의 대만식민화, 이로 인해 발생한 ‘2·28사건(二·二八事件)’<sup>16)</sup>의 기억을 전제로 대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1990년대 이후 ‘중국’이란 단어는 대만사람들 마음속에 대만을 탄압하고 억신여기며, 낙후, 야만, 비민주, 비위생 등의 동의어가 되었다. 반드시 이러한 판단에 동의해야만 대만을 사랑한다고 보았다. 중국연구자는 자각적이든 아니든 ‘중오’의 입장을 견지했다. 대만에서 중국연구는 ‘중국을 반대함(反華)’과 ‘중국을 반대하지 않음(不反華)’ 두 집단 간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場)으로 전락하였다(楊開煌 외 2002, 21-30). 대만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사적,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런 환경

15) 당시 대만의 리덩훤이(李登輝) 총통은 양국론(兩國論)을 제시하였고, 1994년 일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국민당정부의 대만 통치는 일본, 청나라, 명나라때의 정성공(鄭成功) 및 네덜란드의 대만통치와 똑같이 ‘외래정권(外來政權)’이라고 말했다.

16) 1947년 대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국민당정부가 대만사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만사람은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정부를 ‘외래정권(外來政權)’으로 인식했으며, 대만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薛力 2004, 89).

에 끊임없는 적응(適應)과 조정(調整)을 거듭하고 있다. 그들 다수는 ‘중국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중국을 관찰하고 있고, 일부는 중국 내부의 관점으로 중국문제를 논하는 입장을 이해하기도 한다. 때로는 중국어 혹은 영어 문헌 중에서 그 당시(當時)의 적당한 논점을 취하기도 한다. 1990년대부터 중국연구자 다수는 정치적으로 ‘중국인 중심’에서 ‘대만인 중심’으로 서서히 전환하면서, 중국 자체에서 벗어난 분석 및 시각적 경향을 보였다(石之瑜·包滄亮 2012, 73-74).

## 2. 대만특색의 중국연구 구축

### (1) 중국연구의 탈서구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연구는 대만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90년 이후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학자와 미국의 중국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서적, 학위논문 및 기간논문이 대량으로 소개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李宗義 외 2006, 23).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 및 문화연구 등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 중심의 중국연구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미국의 연구경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길 주장했다(임규섭 2014, 13).

실제로 미국의 중국연구는 미국의 인문·사회과학 연구경향을 반영하고 있음으로 대만의 연구자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는 개념, 이론, 모형의 활용은 당연히 중국연구의 통찰력을 제고하여 주지만, 이론의 구축은 중국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념 및 이론의 놀이(遊戲)로 전락하여 중국에 대한 분석이나 이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미국인은 중국을 연구할 때 ‘자아 중심’의 심리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중국연구는 그 특유의 ‘지적 맥락(知的脈絡)’<sup>17)</sup>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속에 미국의 주류가치, 사상유포, 무의식적 선호 혹은 사회적 편견, 심지어는 국가의 현실적 이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溫洽淦 2007, 115). 이런 지적을 통해서 대만의 중국연구

17) 중국연구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구는 미국중심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대만학자는 사회과학영역에서 ‘중국연구’야 말로 대만이 ‘학술적 식민지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1950년, 1960년대 대만의 중국연구가 ‘동태 파악 능력’이라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楊開煌 외 2002, 26). 결론적으로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오리엔탈리즘, 탈식민주의 및 문화연구의 영향을 받은 대만은 미국의 중국연구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만 학자들은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던 방식에서 서서히 벗어날 것을 주장했다.

## (2) 중국연구의 대만특색 강조

대만 학자들은 미국중심의 연구 풍토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만 특유의 중국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방법론상으로 내부자(局內人)적 시각, 중국중심주의(中國中心主義) 연구, 감정이입법(神入法), 현장중심의 질적(質的) 연구방법 및 대만의 관점(臺灣觀點) 등의 논쟁을 벌였다. 2013년 10월 18일에 개최된 국립청화대학교 당대중국연구센터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학자들 모두 “대만은 반드시 ‘대만의 관점’을 가지고 중국연구에 종사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특히, 국립정치대학교 중국대륙연구센터 주임인 왕젠환(王振寰) 교수는 “대만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반드시 ‘대만의 관점’을 활용해야 한다. 중국연구는 대만의 ‘생존(生存)’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만사람이 ‘중국연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陳志柔 외 2014, 28).

한편 ‘공산당이론(共黨理論)’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 연구도 대만 특유의 중국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초 동유럽과 소련의 공산당이 붕괴되면서 서구 학계는 공산주의이론을 중시하지 않았다. 대만 학계도 공산당의 이론 및 사상을 더 이상 중시하지 않았다. 특히 신진연구자들은 대부분 서구의 사유관점(思惟觀點)과 학술적 이론으로 중국의 행위와 현상을 해석하려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중국공산당 행위의 합리성(合理性)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사실상 공산당이론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연구는 중국공산당을 이해하고 중국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보았다(楊開煌 외 2002, 28). 그럼으로 대만 특유의 중국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산당이론 혹은 중국공산당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를 중시하자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만에서 출판된 중국학개론 서적을 살펴보면, 중국공산당이데올로기 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함한 ‘공산당이론’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장환칭(張煥卿)·뎬자평(段家鋒)·쑤위위산(周玉山) 편집(1991)의 『中國大陸研究』에서 “중공당사와 이론(中共黨史與理論)”, 리잉밍(李英明) 편집(2007)의 『中國大陸研究』에는 “중공이데올로기의 지속과 변천(中共意識形態持續與變遷)”, 장우웨이(張五岳) 외 편집(2012)의 『中國大陸研究』 및 리야밍(李亞明) 외 편집(2014)의 『共黨理論與中國大陸研究』에서도 공산당이론과 중공이데올로기를 다루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대만의 자유스런 연구 학풍으로 중국연구의 분야와 주제의 선택도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강준영 2000, 355).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국연구의 성격이 전환되면서 연구자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연구주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에 따라 중국연구에 대한 개론서적도 새로운 변화를 보였다. 첫째는 서적의 내용이 ‘주제중심’으로 편집되고 있으며, 둘째는 연구 주제도 과거에 잘 다루지 않았던 범위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다룬 공산당,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교육 등 주제 외에도, 시대변화에 따라 인터넷, 문화, 종교, 대만상인(臺商), 연구방법 등 주제도 다루고 있다(李英明 2006; 李英明 2007).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연구범위를 뛰어넘어서 대만 특유의 연구방법 및 연구주제의 다양화를 지향하려는 시도이다.

## IV. 연구방법의 논쟁

### 1. 1980년대 논쟁

1980년대 이후 대만의 중국연구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여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였다. 특히 ‘연구방법’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논쟁의 핵심이 되

었다. 이 논쟁은 처음에 일부 미국유학과 학자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들은 미국 등 서구에서 사회과학의 이론, 모형 및 연구방식 등 새로운 개념과 전문용어를 도입하였고, 중국연구에 대해 새로운 사고(思考)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 그들의 논점은 대만 내 대학생과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놀라움과 부러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전의 중국연구자들에게도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에 충격과 압박을 주었다. 연구방법의 논쟁은 커다란 반향(反響)을 일으켰으며, 대만 내에서 교육받은 중국연구자들과 충돌하면서 더욱 복잡한 국면을 맞이하였다. 당시 경험파(經驗派), 전통파(傳統派), 조화파(調和派) 세 집단으로 나뉘어 연구방법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첫째 경험파 학자는 서구의 ‘행위주의’(行爲主義) 연구방법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행위파’(行爲派)라고도 불렸다. 그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 ①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을 운용하면 연구는 더욱 경험적(empirical)이고 정밀화(精密化)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연구의 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
- ② 사회과학의 방법을 운용하면 중국문제에 대한 관찰의 시각을 확대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 새로운 해답을 구할 수 있다.
- ③ 사회과학 이론을 잘 활용하면 소소하고 개별적인 ‘중국문제연구’를 조직적이고 상호 연관된 지식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는 전통파 학자로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 ① 중공(中共)은 특정한 통치집단이기 때문에 서구의 사회과학이론으로는 ‘이성적 연구’를 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중국전통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도 연구할 수 없다.
- ② 중공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식은 역시 ‘감정이입적 이해’(神入理解: empathetic understanding)이며 ‘감정이입’(神入)은 당연히 ‘경험’을 기초로 한다.
- ③ 중국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민족, 자유민주세계에 대해 공헌해야 한다. 즉 연구는 ‘실용성’이 우선하는 것이지, 서구의 학술이론 틀에 억지로 적용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다.

셋째는 조화파로서 앞의 두 집단의 연구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한

다고 생각했으며 ‘연구조건’을 비교적 중시했다.

- ① 연구자의 자격으로 ‘중국어’와 ‘영어’의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중국역사’, ‘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 및 ‘서구의 연구방법론’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연구방법론은 비교적 경험파의 의견과 같이 서구의 사회과학을 이용해야 한다(楊開煌·魏艾 1995, 15-17).

## 2. 1990년대 이후 연구방법에 대한 논점

1980년대 대만 학자들 간의 중국연구방법에 대한 논쟁은 그 후 대만특색의 중국연구방법 구축에도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현지화의 충돌 속에서 대만의 중국연구는 새로운 방법론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 즉 중국연구는 학술의 국제화 및 세계화의 압박과 학술의 현지화 간의 논쟁 속에서 연구방법, 주제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 (1) 중국연구와 분과학문과

대만의 학계도 중국연구를 포함한 ‘지역연구(地域研究)’와 각 분과 학문과의 관계에 대해 학문적 논쟁을 진행하였다. 그 핵심은 “지역연구와 일반 분과 학문 간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지역연구와 각 전공학과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었다. 이에 대해 양카이황(2002)은 대만의 중국연구는 학과를 구축할 수 있는 내적·외적 조건을 대부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학과’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리잉밍(李英明 1995, 9-10)도 중국연구는 ‘학제 간 연구(科際整合)’를 기초로 구축되었으며 자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연구방법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중국어학(中國大陸學)’이라 칭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연구는 반드시 다른 전공학과와 긴밀한 변증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기타 전공학과와 비교했을 때 ‘자주성(自主性)’도 구축해야 하며, 절대로 종속적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2) 내부자적 시각과 중국 중심주의

1990년대 대만의 중국연구는 ‘내부자적 시각’의 연구를 강조하면서 ‘서구중심주의’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폴 코헨(Paul A. Cohen)의 『중국에서 역사의 발견: 미국에서 중국중심주의의 흥기』<sup>18)</sup> 저서의 영향하에서 중국연구의 ‘중국중심주의’를 주장하면서 ‘서구중심주의’ 경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코헨의 말을 빌려 강조하길, 중국을 연구할 때 반드시 ‘중국 자체’에서 출발해야지 ‘서구’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 반드시 ‘내부자적’, 즉 ‘중국적’ 기준 혹은 근거로서 중국역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중국중심주의’의 중국연구는 서구 특히 미국의 ‘사상적 제국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국연구자도 ‘사상적 피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국중심주의 경향의 연구는 중국연구를 중국역사의 맥락 속으로 다시 환원시켰으며, 중국역사의 발전구조 속에서 ‘피연구대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Cohen 1991, 230-233). 이렇듯 중국역사 구조의 맥락에서 중국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중국연구의 ‘내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자가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외부자’의 연구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즉 중국인이라고 해서 꼭 중국중심주의 경향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중국중심주의 경향의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李英明 1995, 140-143). 1990년대 이후 대만에서 중국을 연구할 때 반드시 중국역사의 맥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연구의 중국중심주의와 내부자적 시각의 연구방법을 강조하였다.

## (3) 감정이입법(神入法)

대만의 중국연구는 특유의 경험적이고 전통적인 접근방법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중국적인 느낌’을 체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강준영 2000, 355). 그럼으로 스즈위(石之瑜) 교수는 대

18) 코헨의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저작은 1984년 영문으로 출판되었으며 중국어로 번역된 책은 『在中國發現曆史-中國中心觀在美國的興起』이다.



만특유의 중국연구가 추구해야 할 방법은 ‘감정이입(神入)’이라 했다. 즉 연구자는 중국에 대한 ‘직관(直觀)’을 배양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연구자가 중국인의 상황, 처지, 분위기 등에 빠져들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단지 자기 자신의 생활경험을 근거로 단편적인 일부 정보를 취하여 자신의 관심을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石之瑜 1995, 7-8).<sup>19)</sup> 그럼으로 감정이입법의 목적은 연구자가 ‘피연구대상’과 서로 마음이 맞는 것으로(石之瑜 1995, 35), 연구자는 연구대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연구대상의 ‘현지 상황’에 빠지는 것이라 했다(石之瑜 1995, 244). 현재 대만 학계는 대만특유의 중국연구를 구축하기 위해서 감정이입법을 중시하고 있다.

#### (4) 질적(質的) 연구방법과 현장경험

1990년대 중국연구는 연구방법을 매우 중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구의 사회과학 학술연구를 모델로 삼고 있어서, 그 결과 대만과 중국본토 간의 동문동종(同文同種)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적(量的) 연구방법<sup>20)</sup>은 대만사람이 중국의 문건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럼으로 질적(質的) 연구방법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楊開煌 외 2002, 26).

국립정치대학교 국제관계센터(國際關係中心)의 천더성(陳德昇) 연구원은 대만의 중국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반드시 ‘현장체험 조사연구(蹲點研究)’를 해야 한다. 대만과 중국본토 간의 환경 조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양안 모두가 똑같은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럼으로 중국본토에 직접 가서 ‘중국본토의 감각’을

19) 스즈위(1995)는 중국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첫째는 ‘언어능력’으로 보통화 및 방언도 배워야 하며, 둘째는 ‘역사훈련’이고, 셋째는 ‘문학적 소양’으로 중국인의 희노애락(喜怒哀樂)과 의사소통의 공감대를 배양해야 하며, 넷째는 ‘생활경험’이라 하였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은 연구자가 중국의 상황 및 분위기에 빠지는 감정이입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20) 대만은 서구의 사회과학 영향하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풍토가 매우 강하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적 연구방법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럼으로 중국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중시하자는 논점은 양적 연구방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연구방법의 한계 및 단점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연구방법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기되었다.

느껴야 한다. 즉, ‘현지조사(田野調査)’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립정치대학교 경수(耿曙) 교수도 “연구현장에 접근하라!”고 강조한다.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 많은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없다. 과거부터 중국연구자는 많은 ‘친구(朋友)’를 사귀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그에게 ‘신임(信任)’을 얻어야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신임이 전제되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둘째는 ‘편견(偏見)’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획득한 많은 자료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陳德昇·耿曙 2007, 19-20). 실제로 대만정부가 친척방문을 허용하면서 중국연구자들은 중국본토에 갈 수 있게 되었고 ‘현지답사’는 중국연구의 중요한 연구방법이 되면서 질적 연구방법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 (5) 거시적 연구와 미시적 연구

1990년대 이후 양안 간 경제무역 왕래가 더욱 확대되면서 상황은 변하여, 대만의 사업가(商人)는 전체 중국의 경제무역환경 및 경제무역정책을 몰라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의 경제무역정책 혹은 지역의 시장흐름을 모르면 안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과거 대만 학자들은 ‘중국본토’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굳이 지역을 구분하여 연구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대만 학자들은 ‘지역’ 중심의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연구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楊開煌·魏艾 1995, 24). 이에 따라 과거 거시적 연구경향에서 탈피하여 지역적이고 미시적인 연구주제를 선호하게 되었다.

#### (6) 학술연구와 정책연구

대만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는 ‘현실적 고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양안관계의 발전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중국 내부의 정세 변화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대만의 중국연구는 특유의 연구전통과 사명감을 발전시키면서

‘수단적’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즉 ‘전략적 이익’ 혹은 ‘국가 안전’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대만에 대한 중국의 행태 및 중국의 정치·경제적 통치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대만의 중국연구는 사회과학영역에 한정되어 단순화되었다(張弘遠·李宗義 2005, 251-252).

천더성(2007)은 “대만에서 중국연구와 양안관계연구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대만의 현실환경은 그 중요성을 뼈저리게 못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중국은 대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지역이다. 그러므로 중국연구자의 목적은 ‘대만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한 정책’을 잘 만드는 것이다. 만약 그 반대라면, 대만의 생존 공간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陳德昇·耿曙 2007, 22). 대만에서 중국연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술적 중국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역시 대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중국연구자는 자신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중국에 대한 국가이익의 최대화와 위협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 제안’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V. 결론

대만에서 중국연구는 대부분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그 영향력을 나날이 증대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대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楊芷菱 2005, 5). 기남대학교(暨南大學) 천페이슈(陳佩修) 교수는 “대만의 중국연구자들은 국제적 안보, 지역정치 및 경제 등의 주제를 다룰 때, 중국이 정치·외교적으로 펼치는 압박 및 경제적 흡입효과(磁吸效應)에 대해 대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핵심논리로 삼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쉼기 및 부상에 직면하여 대만이 어떻게 대처하면 주변화(周邊化)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논하고 있다. 대만의 중국연구는 ‘중국을 어떻게 대처하여 대만의 주변화를 피할 수 있는가?’라는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王宏仁 외 2005, 4). 대만에서 중국연구의 성과물은 대부분 대만의 입장에서 중국의 변화에 대한 대처 방향을 제

시한다. 정책적 성향이든지 학술적 경향의 연구결과물이든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중국의 변화에 대한 대만의 대처 방향을 논한다. 즉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논리의 ‘반응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만의 중국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정연구, 중공연구, 중국대륙연구 등으로 명칭 및 그 의의도 변해왔으며, 1990년대 이후 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만의 중국연구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대만은 현지화, 탈서구화 및 탈중국화 등의 영향으로 ‘중국’을 다른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연구의 정체성은 변했으며 중국연구자는 신분 선택에 대한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학술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등의 영향하에서, 학자들은 대만특색의 중국연구를 구축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산당이론 및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의 중요성도 언급하였고 연구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쟁도 진행하였다. 주요 논점으로 지역연구와 분과학문 간의 관계, 내부자적 시각, 중국중심주의, 감정이입법, 질적 연구, 현장경험, 미시적 연구, 학술연구와 정책연구 능력 견비 등이 있으며, 그 핵심 논리는 “서구, 특히 미국중심의 논리방식 및 연구경향에서 벗어나야 하고, 대만특색의 중국연구를 구축해야 한다.”이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연구의 현지화 및 대만특색의 중국연구 구축을 강조하였지만, 그런 과정에서 대만은 오히려 미국의 중국연구에 대해 더욱 종속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연구의 문제의식, 연구방법 및 이론의 활용 등 전반적으로 대만학자들은 ‘미국이 중국사회를 관찰하는 것’에 대한 모방의 성격이 강했고, 특히 미국의 중국연구 경향에 대한 답습의 ‘반응적 성격’을 보였다(李宗義 외 2006, 19). 중국연구자의 주류는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로서, 연구주체의 미국화(美國化)가 심화됨에 따라 연구방법, 연구 분석틀, 연구 범위 및 주제 등 전반적으로 미국의 학문적 성과에 크게 영향 받았다. 1990년대 이후 대만 학계는 ‘대만특색’을 강조하면서 독창적인 중국연구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대만의 학문적 종속관계 및 탈식민주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만의 중국연구는 그러한 ‘논리방식’도 미국의 인문·사회과학의 학술적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의 중국연구 성과에 대한 반응적 경향을 보였다.

| 참고문헌 |

- 강준영 (2000). “대만과 중국정치 연구.” 정재호.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출판사, pp. 329-356.
- 박병석 (1999). “미국의 중국연구 추세와 접근법: 한국의 문제점을 아울러 논함.” 『東北亞發展研究』. 제1집, pp. 137-212.
- 임규섭 (2014). “1990년대 이후 대만에서 중국연구의 논쟁 및 변화.” 『第四屆聯合國際學術會議: 走向未來-韓臺人文社會科學的對話』.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울. 6월.
- 전성홍 (1996). “중국 국내정치 분야에 관한 연구의 동향과 발전 방향.” 백권호·이문형·이태완·전성홍. 『중국정치경제에 관한 국내 연구의현황과 과제』.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pp. 10-67.
- Paul A. Cohen (1991). 『在中國發現歷史-中國中心觀在美國的興起』. 林同寄 역. 타이베이: 稻鄉출판사.
- 陳德昇·耿曙 (2007). “中國研究學科對話工作坊一系列座談(二): 培養中國研究學者的訓練: 理論與實務的對話.” 『兩岸關係與中國大陸研究通訊』 1月, pp. 18-24.
- 陳東林 (2004). “港澳台地區當代中國史研究狀況考察.” [http://www.iccs.cn/detail\\_cg.aspx?sid=158](http://www.iccs.cn/detail_cg.aspx?sid=158) (2009년 10월 29일 검색)
- 陳志柔 外 (2014). “中國研究典範之臺灣與國際觀點論壇.” 『當代中國研究通訊』. 第21期, pp. 27-29.
- 李亞明 外 (2014). 『共黨理論與中國大陸研究』. 타이베이: 黎明文化出版社.
- 李英明 (1995). 『中國大陸學』. 타이베이: 揚智出版社.
- 李英明 (2007). 『中國大陸研究』. 타이베이: 巨流出版社.
- 李英明 (2006). 『中國研究』. 타이베이: 生智出版社.
- 李宗義·張弘遠·許雅淑 (2006). “社會學與中國研究: 台灣的位置.” 臺灣社會學年會暨國科會專題研究研究成果發表會: <走出典範: 臺灣五十年的社會學> 學術會議. 東海大學校. 타이중.
- 林碧韶 (2005). “認識當代中國.” 『兩岸關係與中國大陸研究通訊』 1月, pp. 29-31.
- 石之瑜 (1995). 『大陸問題研究』. 타이베이: 三民書局.
- 石之瑜·包淳亮 (2012). “微觀台灣學界對中國大陸的研究角度: 后殖民視野下的遭遇與選擇”. 『開放時代』 第5期, pp. 64-80.
- 王宏仁 外 (2005). 『94年「中國研究與區域研究: 資料對理論」 시리즈 學術會議』 資料. 暨南大學校. 난터우. 9月 30日.

- 王榮華·黃仁偉 (2007). 『中國學研究: 現狀·趨勢與意義』. 상하이: 學林出版社.
- 王振寰 (2011). “當代中國研究在臺灣.” 『臺灣社會學會通訊』. 4月(71期), pp. 13-14.
- 溫洽溢 (2007). “當代西方的中國發展: 以美國為例.” 李英明. 『中國大陸研究』. 타이베이: 巨流出版社, pp. 77-117.
- 翁松燃 (2005). “中國研究的過去與展望.” 『兩岸關係與中國大陸研究通訊』 1月, pp. 32-34.
- 吳玉山 (2000). “政治與知識的互動: 臺灣的政治學在九〇年代的發展.” 何思因·吳玉山 편. 『邁入二十一世紀的政治學』. 타이베이: 國際關係中心, pp. 3-48.
- 徐斯勤 外 (2006). “典範轉型下的中國研究: 臺灣研究社群的觀點.” 清華大, 政治大, 臺灣大 <當代中國研究CENTER> 會議資料. 타이베이. 11月 10日.
- 薛力 (2004). “族群認同: ‘臺獨’的主要動力.” 『二十一世紀』. 8月號(總第4期), pp. 88-92.
- 楊開煌·魏艾 (1995). 『中國大陸研究概論』. 타이베이: 國立空中大學.
- 楊開煌·王誠·羅懷家 (2002). 『中國大陸研究概論』. 타이베이: 國立空中大學.
- 楊芷菱 (2005). “政大中國研究再啓新頁.” 『兩岸關係與中國大陸研究通訊』. 1月, pp. 5-34.
- 張弘遠·李宗義 (2005). “中國大陸在臺灣: 研究體制的發展與變遷.” 石之瑜 篇. 『中國臨摹到反思: 我國社會科學博士對歐美知識與體制的回應』. 타이베이: 翰蘆圖書出版社, pp. 251-282.
- 張煥卿·段家鋒·周玉山 (1991). 『中國大陸研究』. 타이베이: 三民書局.
- 張五岳 외 (2012). 『中國大陸研究』. 타이베이: 新文京開發出版社.

| 논문투고일 : 2014년 11월 17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12월 09일 |

| 게재 확정일 : 2014년 12월 23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4 (2014)

## **The Localization of China Studies and Issues on Research Methods in Taiwan since '90s**

**Kyoo-Seob Lim**

(Dept. of Chinese Studies, Kyung Hee Cyber Univ.)

Korea's China Studies has been developing mainly under the academic influence of the U.S., Japan, China, and Taiwan, etc. Among them, Taiwanese study experience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Korean researchers by presenting not a few research results and fruitful outcomes. In some periods, researchers who had studied in Taiwan used to play main roles in China Studies in Korea. This thesis reviews the history and status of the Taiwan's Studies related to China. And it analyzes the trend of Taiwan's China Studies by focusing on the points at issues that have emerged from the developing procedure. Especi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mainly lays in the identity change of China studies and the debate of research method. Since Taiwan's national and social environment is differ from Korea, it started its China Studies with different epistemology and finality. Accordingly, this study tries to provide different point of view for the improvement of Korea's China Stud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aiwan's China Studies.

▪ Key words: Sinology, China Studies, Area Studies, Taiwan, Research Method